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A



미래엔  
신유식



# 1

## 문학의 빛깔

- 
- (1) 서정 갈래의 이해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 (2) 서사 갈래의 이해  
달밤\_이태준
  - (3) 극 갈래의 이해  
파수꾼\_이강백
  - (4) 교술 갈래의 이해  
통곡할 만한 자리\_박지원

## (1) 서정 갈래의 이해

## 슬픔이 기쁨에게 \_정호승

핵심

정리

## 1. 이해와 감상

기쁨과 슬픔에 대한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자는 교훈적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적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서정적이고 심미적인 느낌을 준다. 추상적 개념인 슬픔을 의인화한 ‘나’가 등장하여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정서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심미적(審美的)**: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것, 글의 내용을 깨닫고 느껴서 그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것을 말한다.

● **간명(簡明)하다**: 간단하고 분명하다.

## 2. 작가 소개

▶ 정호승(1950~ ): 시인.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작품을 주로 썼다. 개인적 서정을 간명한<sup>◆</sup> 시어와 인상적인 이미지에 담아냈다는 평을 받으며, 1990년대 이후 가장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시인으로 꼽힌다.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이 있고, 그 외의 책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집 『항아리』, 『연인』과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준 한마디』 등이 있다.

## 3. 핵심 정리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상징적,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
| 제재 | 슬픔, 기쁨  |
| 주제 |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
| 특징 | ① 역설적인 표현 <sup>◆</sup> 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br>② ‘슬픔’, ‘기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br>③ 낯설게하기 <sup>◆</sup> 기법을 활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줌. |

● **역설적(逆說的)인 표현(表現)**: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말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아내는 표현.

● **낯설게하기**: 러시아 형식주의의 주요한 문학적 수법. 시클롭스키(Shklovsky, V.)가 주장한 것으로 일상회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이른다.

## 4. 작품의 구성

|        |                               |
|--------|-------------------------------|
| 1~6행   |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
| 7~13행  |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
| 14~19행 |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

## 5. 시상 전개 방식

화자(‘나’ – 슬픔)가 청자(‘너’ –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청자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비판하는 것에 서 그치지 않고 청자에게 깨달음을 줌.

## 6. 표현상 특징

|          |  |
|----------|--|
| 낯설게하기 기법 | 슬픔과 기쁨에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
| 시어의 대비   | 슬픔과 기쁨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 대상의 의인화  |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인격적 특성을 부여하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 역설적 표현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 참고 작품에 드러난 역설적 발상

일반적으로 기쁨은 긍정적으로, 슬픔은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작품에서는 슬픔이 기쁨을 비판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7. 운율 형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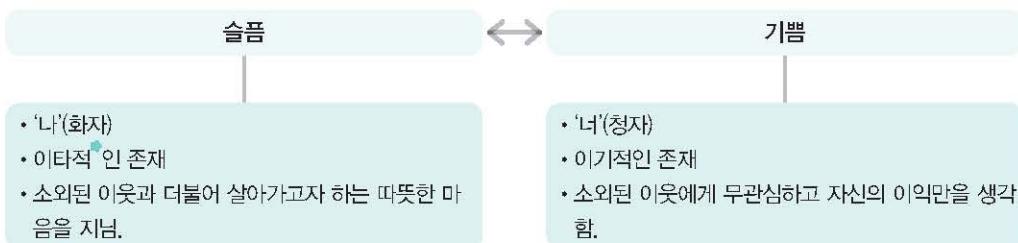
|        |  |
|--------|--|
| 음보의 반복 | 4음보를 반복함.<br>예 '나는 이제 V 너에게도 V 슬픔을 V 주겠다. / 사랑보다 V 소중한 V 슬픔을 V 주겠다.' |
| 음운의 반복 | 'ㄴ'을 반복함. 예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견겠다.'                                    |
| 어미의 반복 | '-겠다'를 반복함. 예 '주겠다', '멈추겠다', '걷겠다', '걸어가겠다'                          |

## 8. 화자의 태도

-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함.
-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함.

## 9. '슬픔'과 '기쁨'의 대립적 속성



## 10.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   |
|----------------------|---|
| 사랑보다<br>소중한 슬픔       |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타적 슬픔이 더 가치 있음. |
| 할머니, 동사자             |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
| 가마니 한 장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
| 함박눈                  | 소외된 이웃에게는 고통을, 가진 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
| 봄눈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감싸는 존재                               |
| 기다림의 슬픔<br>까지 걸어가겠다. | '너'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                |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sup>①</sup> □: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sup>②</sup>

역설법 – 이기적인 사랑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함.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난 시련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너'는 소외된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이기적인 존재임.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소외된 이웃을 멀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 – '너'에게 슬픔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함.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함.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고통을 외면함.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기쁨이 갖는 이기적 속성을 보여 주는 존재 – '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함.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단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름.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sup>③</sup>

→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 슬픔

이 세상에 내리던 합박눈을 멈추겠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고통, 가진 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보리밭에 내리던 불눈들을 데리고

소외된 이웃을 감싸는 존재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 화자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소외된 이웃이 눈으로 인해 추위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공간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는 힘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sup>④</sup>

→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 ▶ 시장 전개 과정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1~6행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너'에게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알려 주고자 함.

7~13행

이기적인 '너'에게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 ▶ 어휘 및 구절 풀이

❶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화자 '나(슬픔)'가 청자 '너(기쁨)'에게 슬픔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여기서 '너'는 슬픔의 가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❷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픔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화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연민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의 가치를 청자에게, 나아가 독자에게 알려 주고자 함. – 역설적 표현

❸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화자는 '너'가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이러한 기다림을 받은 '너'는 이전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연민할 줄 아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하는 것임.

❹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너'가 진정한 슬픔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   |
|----|---|
| 슬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자인 '나'</li> <li>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타적인 존재</li> </ul>     |
| 기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적 대상(청자)인 '너'</li> <li>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li> </ul> |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01 윗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 표 하시오.

- (1) ‘나’로 표상되는 ‘슬픔’이 ‘너’로 표상되는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슬픔’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존재, ‘기쁨’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각 대상에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3) 화자는 소외된 이웃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다.
- (4) ‘–겠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5) ‘슬픔’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한다.
- (6) ‘함박눈’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녹이는 축복을 상징한다.
- (7) 화자는 ‘너’에게 진정한 슬픔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 표상(表象)되다: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하던 것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다.

## 작품의 특징

## 0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유사한 의미를 지닌 청자의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④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에 대한 지향을 권유하고 있다.
- ⑤ 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시어의 성격

## 03 시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      |       |      |
|------|-------|------|
| ① 너  | ② 슬픔  | ③ 추위 |
| ④ 어둠 | ⑤ 함박눈 |      |

## 시어 및 시구의 의미

## 04 다음은 윗글의 시어 및 시구이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          |     |                            |
|----------|-----|----------------------------|
| 살아온 추위   | ⑦ • | • ①      현실적 고난, 시련        |
| 할머니, 동사자 | ⑮ • | • ⑫      가진 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
| 기다림      | ⑯ • | • 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
| 함박눈      | ⑯ • | • ⑭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    |

※ 동사자(凍死者): 얼어 죽은 사람.

## 표현상 특징

## 05 윗글에서 &lt;보기&gt;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를 찾아 쓰시오.

## 보기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1~15] 교과서 본문과 주요 내용을 학습한 후에 다음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 하시오.

01 화자인 ‘슬픔’이 청자인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3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04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05 대조법<sup>\*</sup>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대조법(對照法):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사법.

06 의지적 어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7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8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9 익숙한 시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낯설게하기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10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온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11 화자는 청자에 대해 비관적<sup>\*</sup>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비관적(悲觀的): ①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 ②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

12 소외된 이웃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13 ‘기쁨’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할머니’와 ‘동사자’는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가리킨다.

15 ‘봄눈’은 ‘합박눈’과 대립되는 긍정적 의미의 시어이다.

# 빈칸넣기로 내용 확인

[01~15] 교과서 지문을 정독한 후에 다음 설명의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      |      |       |      |      |       |      |       |       |
|------|------|-------|------|------|-------|------|-------|-------|
| • 기쁨 | • 슬픔 | • 성찰  | • 통념 | • 소외 | • 역설적 | • 의지 | • 무심  | • 평등  |
| • 봄눈 | • 포용 | • 이기적 | • 너  | • 나  | • 기다림 | • 추위 | • 형상화 | • 힘박눈 |

01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하고 있다.

02 기쁨의 태도에 대한 □□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있다.

03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하다는 □□□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4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나(□□)’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05 화자는 자신의 행복과 안일<sup>❸</sup>에 빠져 남의 아픔에 □□한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❸ 안일(安逸): 편안하고 한가로움,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

06 ‘슬픔’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을 뒤집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07 ‘□’는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는 남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인다.

❹ 보듬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불도록 안다.

08 ‘슬픔’과 ‘□□□’은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09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에는, 화자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서의 슬픔을 청자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가 드러나 있다.

10 ‘살아온 □□’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11 ‘할머니’, ‘동사자’는 □□된 이웃을 뜻한다.

12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소외된 이웃의 삶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 존재이다.

13 ‘슬픔의 □□한 얼굴’은 소외된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의미한다.

14 ‘□□□’은 소외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고, ‘□□’은 소외된 이웃들을 감싸 주는 따뜻한 존재이다.

15 화자가 ‘너’와 이야기하려는 ‘슬픔의 힘’은 소외된 이웃을 □□하는 힘을 말한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⑧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⑨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⑩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⑪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⑫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⑬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최다 빈출

## 1 웃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 발상을 통해 기존의 가치를 전도하고 있다.
- ②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대결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자의 행동을 나열하여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전도(顛倒)하다: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가꾸로 되게 만든다.

## 학습 활동

## 2 윗글의 운율 형성 방법을 &lt;보기&gt;에서 골라 바르게 짹 지은 것은?

보기

- ㄱ. 같은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ㄴ. 화자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ㄷ. 한 행을 4마디 단위로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 ㄹ. 처음과 끝의 시구를 비슷하게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대칭<sup>\*</sup>을 이루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 대칭(對稱): 점·선·면 또는 그것들의 모임이 한 점·직선·평면을 사이에 두고 같은 거리에 마주 놓여 있는 일.

## 학습 활동

## 3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윗글의 구조를 &lt;보기&gt;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슬픔(A) ↔ 기쁨(B)

- ① A는 B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A는 화자인 ‘나’를, B는 청자인 ‘너’를 가리킨다.
- ③ A는 긍정적인 존재이지만, B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 ④ A는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지만, B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 ⑤ A와 B는 서로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걸하는 사람에게 악담을 하는 할아버지
- ② 집이 없이 지하철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 ③ 구세군<sup>\*</sup>에 기부하는 성금을 아까워하는 학생
- ④ 독거노인이 빈 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가게 주인
- ⑤ 길에 앉아 콩나물을 파는 장애인에게 가격을 깎는 아주머니

\* 구세군(救世軍): 1865년에 영국인 부스(Beth W.)가 청시한 개신교의 한 파: 가듭남, 성결, 통사를 중히 여기는 군대식 조직으로, 전도와 사회사업을 한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⑦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⑧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⑨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⑩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⑪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⑫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⑬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최다 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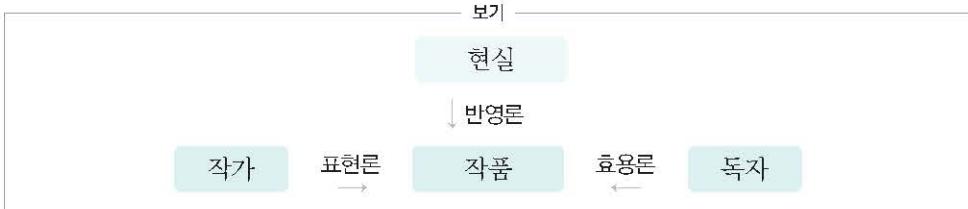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조되는 소재를 배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특정 음운과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고난도

## 2 &lt;보기&gt;의 효용론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도시 문명의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어.
- ②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마음과 연민이 드러나 있어.
- ③ 나도 개인주의에 젖어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닐까 반성해 보았어.
- ④ 도시의 문명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 ⑤ 1970년대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비정해 져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 참고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
|---|
| 작가는 누구이며, 왜   |
| 표현론 그렇게 표현하였는지<br>에 따라 감상하는 관점                        |
| 반영론 작품 속에 어떤 역사와<br>현실이 반영되었는지<br>를 비탕으로 감상하는<br>관점   |
|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br>받아들일지, 어떤 교훈<br>을 얻을지를 비탕으로<br>감상하는 관점 |

## 3 윗글의 '너'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①~⑤ 중, 그 성격이 이질적인 것은?

- ① ⑦      ② ⑮      ③ ⑭      ④ ⑯      ⑤ ⑩

◆ 이질적(異質的): 성질이 다른 것.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멀고 있는 ④ 할머니에게

④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③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④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01 &lt;보기&gt;의 ㄱ~ㄹ 중 웃글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바르게 짹 지은 것은?

보기

- ㄱ. 4음보의 울격을 활용하고 있다.
- ㄴ.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ㄷ.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ㄹ. 대비되는 색채가 드러나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02 웃글의 청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겨울보다는 봄을 더 좋아한다.
- ② 세대를 초월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③ 보리밭이 있는 자연에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
- ④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한다.
- 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 03 ①~④ 중 &lt;보기&gt;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보기

역설적 표현: 논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함께 사용하여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웃글에서는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 04 서술형 웃글에서 ④와 같은 의미의 시어를 찾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명사로 끝맺을 것)

##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뭐 바깥이 캄캄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



## [0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멀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ليل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lt;슬픔이 기쁨에게&gt;

(나)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 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⑦그는 삼 원 돈에 명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곱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 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굽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⑧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니다.”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⑨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쓰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듯값을 물어 주었다. 포듯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깐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⑩“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였다 ⑪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혁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뺏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이태준, &lt;달밤&gt;

(다) ⑫나으리, 생각이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희롱 가